

高级韩国语



主 编/崔羲秀

副主编/俞春喜 李敏德



辽宁民族出版社

高级韩国语

(下)

主 编 崔羲秀
副主编 俞春喜
李敏德

辽宁民族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高级韩国语. 下 / 崔羲秀主编. —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3. 12

ISBN 7 - 80644 - 834 - 9

I. 高... II. 崔...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3) 第 102367 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刷者: 朝阳新华印刷厂印刷

幅面尺寸: 185mm × 260mm

印 张: 18 ½

字 数: 320 千字

印 数: 1—3 000

出版时间: 2003 年 12 月第 1 版

印刷时间: 2003 年 12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权春哲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赵善玉

定 价: 20.00 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E - mail: lnmz@mail.lnpgc.com.cn

编写说明

《高级韩国语》(下)今天终于问世了。本教材与《高级韩国语》(上)在知识与内容方面保持连续性、系统性,是我们编写的韩国语精读系列教材的最后一部。

本教材共安排了10篇精读课文、10篇阅读课文。精读课文都由课文、词汇、练习组成。考虑到学习者已经掌握了7000个左右词汇,本书的新词都用韩国语解释,以求学生在学习词汇时巩固已学词汇,加强对韩国语的理解。本教材没有安排语法解释。因为常用语法已基本学完,本教材只出现一些方言中的个别现象,想必读者可以自行解决。

为了让学习者在学习本文的基础上增加单词量,开拓视野,在课后安排了阅读课文。阅读课文由阅读提示、课文、思考题组成,读者可以根据阅读提示和思考题去理解课文内容。

自2000年以来,我们利用紧张的教学之余编写出版了《初级韩国语》(上、下)、《中级韩国语》(上、下)、《高级韩国语》(上、下),总算了却了编写出韩国语精读系列教材的心愿。如果这套教材能成为读者学习韩国语的益友,我们将感到无比的欣慰。

由于水平所限,书中不乏疏漏之处,我们欢迎读者提出批评指正。

编者

2003年10月12日

차 례

제1과 설	1
제2과 신록 예찬(新綠禮贊)	15
제3과 잊지 못할 윤동주(尹東柱)	28
제4과 정보화 시대와 독서	49
제5과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61
제6과 광고와 대중 문화	74
제7과 국가 간의 경제 거래와 협력	91
제8과 별	104
제9과 사랑 손님과 어머니	126
제10과 수난 이대	165
열독문	199
1. 언덕 위의 집	199
2. 할머니의 가위	202
3. 나무에 대한 예의	206
4. 날씨와 생활	209
5. 음식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212

6. 모기	215
7. 도량형	219
8. 정보화 사회와 통계학	222
9. 맛과 한국인의 삶	225
10. 저항으로서의 글 쓰기	228
부록: 단어표(1467개)	232

제1과

설

전속회

설이 가까와 오면, 어머니는 가족들의 새 옷을 준비하고 정초 음식 차리기를 서두르셨다.

가으내 다듬이질을 해서 곱게 매만진 명주로 안을 받쳐 아버님의 옷을 지으시고, 색깔 고운 인조건을 떠다가는 우리들의 설빔을 지으셨다. 우리는 그 옆에서, 마름질하다 남은 형짚 조각을 얻어 가지는 것이 또한 큰 기쁨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살림에 지친 어머니는 그래도 밤 늦게까지 가는 바늘에 명주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새 옷을 지으셨다. 우리는 눈을 비벼가며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었다.

착한 아기 잠 잘 자는 베갯머리에
어머님이 홀로 앉아 꿰매는 바지
꿰매어도 꿰매어도 밤은 안 깊어.

잠든 아기는 어머니가 꿰매 주신 바지를 입고 산줄기를 타며 고향도 지를 것이다. 우리는 설빔을 입고 널뛰는 꿈도 꾸었다.

설빔이 끝나면 음식으로 접어든다. 역시 즐거운 광경들이었다.

어머니는 미리 장만해 둔 엿기름가루로 엿을 고고 식혜를 만드셨다. 아궁이에서는 통장작불이 활활 타고, 쇠솥에선 코오피 색 엿물이 설설 끓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설이구나 하는 실감으로 내 마음은 온통 그 아궁이의 불처럼 행복하게 타올랐다. 오래오래 달인 엿을 식혀서는 강정을 만들었다. 검은콩은 볶고 호콩은 까고 깨도 볶아 놓았다가, 둥글둥글하게 콩강정도 만들고 깨강정도 만들었다. 소쿠리에 강정이 수북이 쌓이면서 굳으

면, 어머니는 독 안에다 차곡차곡 담으셨다.

수정과를 담그는 일도 쉽진 않다. 우선 감을 깎아 가으내 말려서 꺾감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알맞게 건조한 꺾감은 바알깡게 투명하기까지 하고, 혀끝에 녹는 듯한 감칠맛이 있다. 이것을 향기로운 새앙물에 띄우고, 한약방에서 구해 온 계피를 뽕아 뿌리는 것이다.

빈대떡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우선 녹두를 맷돌로 타서 물에 불려 거피를 내고 다시 맷돌에 곱게 갈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도 알맞게 썰어 넣은 다음, 넉넉하게 기름을 두르고 부쳐 내는 것이다. 며칠씩 소쿠리에 담아 놓고 손님상에 내놓기도 좋거니와, 술뚜껑에 푸짐히 부쳐 가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것도 별미였다.

그러나, 정초 음식의 주제는 역시 흰떡이다. 흰쌀을 물에 담갔다가 잘 씻고 일어선 차레로 찌내고, 앞뜰에 떡판을 놓고는 장정 두어 사람이 철쭉 철쭉 쳤다. 떡판에선 김이 무럭무럭 올랐고, 우리들은 군침이 돌았다. 장정들이 떡을 쳐내면 어머니는 밤을 새워 떡가래를 뽑고, 알맞게 굳으면 이것을 썰으셨다. 그리고, 새벚군이 오는 대로 맛있는 떡국을 끓이고, 부침개며 나물이며 강정이며 수정과며 한 상씩 차려 내셨다.

나는 지금도 실날이 되면, 어머니 옆에서 설빔이 되기를 기다리던 그 초조한 기쁨, 엿을 고고 강정을 만들고 수정과를 담그고 흰떡을 치던 모습, 빈대떡 부치던 냄새, 이런 흐뭇한 기억이 되살아나 향수에 잠긴다.

우리 어머니들은 설빔 하나 만드는 데도, 설 상 하나 차리는 데도 이처럼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알뜰한 정성과 사랑을 쏟아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대접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가?

기성복상에는 항상, 맞춘 것 이상으로 척척 들어맞는 옷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언제든지 돈만 들고 나가면 당장에 몇 벌이라도 골라 입을 수 있다. 설이 돌아와도 여자가 그의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밤 새워 옷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식료품상에는 다 만든 강정이 쌓여 있고, 다 갈아 놓은 녹두도 있다. 아니, 빈대떡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흰떡도 치거나 뽑을 필요가 없이, 쌀만 일어 가지고 가면 금방 떡가래를 찾아올 수 있다.

세상이 모두 기계화되었으니,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뿐이요, 숨쉴 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사랑이 아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편리'속에 짙은 향수가 겹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리는 정작 귀한 것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여성들의 그 정성과 사랑을 우리는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의 옷 한 가지 짓는 데도, 남편의 밥 한 그릇 마련하는 데도, 조상의 제삿상 하나 차리는 데도, 이웃에 부침개 한 접시 보내는 데도, 우리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쳤다. 옛날의 우리 의생활과 식생활은 여성들의 무한한 노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여성들은 오로지 정성과 사랑으로, 노고를 노고로, 인내를 인내로 알지 않았다.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버선볼을 박던 며느리, 손 시린 한겨울에도 찬물을 길어다 흰 빨래를 하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고,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와 어머니, 한국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누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잃어 가고 있다. 마음을 잃어 가고 있으므로 생활도 잃어 간다. 아침이면 뿔뿔이 헤어지고, 저녁에 모여선 빵과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 앞에서 대화 없는 몇 시간을 지내다간 또 뿔뿔이 헤어져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많다. 편리하지만 참생활이 없다. 그래서, 현대인은 고독한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들에게서 느끼던 그 '어머니'를 오늘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지를 못한다. 사서 입히고 사서 먹이는 동안에 우리는 정성과 사랑이 식어 간 것이다. 빠져린 고생이 없는 대신, 그 뒤에 오는 샘물 같은 기쁨도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독하게 자라는지도 모른다. '편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뜨겁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새삼스럽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여성들이 보여준 그 정성과 사랑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마음만은 이어받자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화된 생활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은 쏟을 데가 있을 것이

다. 이야말로 삭막해져 가는 우리의 생활을 인간다운 것으로 되돌리며, 현대인의 고독을 치유하는 길이라.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까지도 없다. 나의 남편과 아이들로 하여금, 고독을 모르는 기쁜 생활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라고 믿자.

명절이 돌아오면 나의 고독한 눈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꾸만 떠오른다.

단 어

- | | |
|---------|--|
| 가으내(부) | 한가울 내내. |
| 가지(명) | 사물을 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알이 헤아리는 말. |
| 감칠맛(명) | ①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②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
| 강정(명) | 깨나 콩 따위를 되직한 물엿에 버무려 만든 과자. |
| 거창하다(형) | 일의 규모나 형태가 매우 크고 넓다. |
| 거피(명) | 콩, 팥, 녹두 따위의 껍질이나 소, 돼지, 말 따위의 가죽을 벗김. |
| 검은콩(명) | 껍질 색이 검은 콩. 검정콩. |
| 계피(명) | 계수나무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감기 해열제로 쓰며 지절통이나 복통에도 쓴다. |
| 고다(동) | ①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다.
②줄아서 진하게 엉기도록 끓이다. |
| 고함(명) | 크게 부르짖거나 외치는 소리. |
| 꽃감(명) |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에 꿰어서 말린 감. |
| 군침(명) | 공연히 입안에 도는 침. |
| 굳다(형) | ①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②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러워지 못하고 딱딱하여지다. |

- ③몸에 배어 버릇이 되다.
- ④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 기계화(명)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
- 기성복상(명) 일정한 기준 치수에 맞추어서 대량으로 미리 지어 놓은 옷을 파는 곳.
- 긴다(동) 우물이나 샘 따위에서 두레박이나 바가지 따위로 물을 떠내다.
- 깨강정(명) 참쌀가루 반죽을 적당히 썰어서 말린 뒤에, 기름에 튀기고 꿀 바른 위에 붉은 깨를 묻힌 강정.
- 깨(명) 참깨, 들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깨매다(동)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깎거나 엮어매다.
- 노고(명) 힘들어 수고하고 애씀.
- 녹두(명) 콩과의 한해살이풀. 绿豆
- 달이다(동) ①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드다.
②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
- 담그다(동)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
- 돼지고기(명) 식용으로 하는 돼지의 고기.
- 되돌리다(동) ①움직이던 쪽과 반대되게 방향을 바꾸어 가게 하거나 돌아가게 하다.
②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본디의 상태가 되게 하다.
- 되살아나다(동) ①잊었던 감정이나 기억, 기분 따위가 다시 생각나거나 느껴지다.
②세력이나 활력 따위가 다시 살아나거나 생겨나다.
③죽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
- 두르다(명) ①겉면에 기름을 고르게 바르거나 얹다.
②띠나 수건, 치마 따위를 몸에 휘감다.
- 들러앉다(동) 여럿이 둥그렇게 앉다.
- 둥글둥글하다(형)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둥근 모양.
- 들다(동) '눈', '마음' 따위의 뒤에 쓰여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 들어맞다(동) 정확히 맞다.

땀(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을 켜 바늘로 한 번 뜬 자국을 세는 단위.
때우다(동)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
떡가래(명)	가래떡의 가늘고 긴 몸.
떡국(명)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
떡판(명)	①떡을 칠 때 쓰는 판. ②음식을 잘 차려 놓은 판이라는 뜻으로, 재수가 좋거나 호뭇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뜨다(동)	피륙에서 옷감이 될 만큼 끊어 내다.
뜨우다(동)	'뜨다'의 사동사.
따름질(명)	옷감이나 채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
맞추다(동)	①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부탁을 하다. ②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③주로 '보다'와 함께 쓰여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펴보다.
매만지다(동)	잘 가다듬어 손질하다.
맷돌(명)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려서 간다.
먹이다(동)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게 하다.
명주(명)	명주실로 무늬 없이 잔 피륙.
명주실(명)	누에고치에서 뽑은 가늘고 고운 실.
바늘(명)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뽕족한 쇠로 된 물건. 한쪽 끝에 있는 작은 구멍에 실을 꿰어서 쓴다.
바알깡다(형)	밝고 얇게 붉다. 발깡다
박다(동)	①실을 곱걸어서 꿰매다. ②두들겨 치거나 틀어서 꽃혀지게 하다. ③머리 따위를 부딪치다. ④식물이 뿌리를 내리다.
밤새다(동)	주로 '밤새도록' 꼴로 쓰여 밤이 지나 날이 밝아 오다.
버선불(명)	버선 바닥의 넓이.

배갯머리(명)	배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머리가 향한 위쪽의 가까운 곳.
별미(명)	특별히 좋은 맛. 또는 그 맛을 지닌 음식.
볶다(동)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
부치다(동)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전병(煎餅)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
부침개(명)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비비다(동)	두 물체를 맞대어 문지르다.
빈대떡(명)	녹두부침개, 녹두전, 녹두전병, 녹두지짐.
뼈저리다(형)	뼈아프다.
삭막하다(형)	쓸쓸하고 막막하다.
산줄기(명)	큰 산에서 길게 뻗어 나간 산의 줄기.
살림(명)	①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②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
상(명)	음식을 차려 내거나 걸터앉거나 책을 올려놓고 볼 수 있게 만든 가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반, 책상, 평상 따위가 있다.
새앙물(명)	생강을 달인 물.
샘물(명)	샘에서 나오는 물.
설(명)	새해의 첫날을 명절로 이르는 말.
설빔(명)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하여 입거나 신는 옷, 신발 따위를 이르는 말.
설설(부)	①넓은 그릇의 물 따위가 천천히 고루 끓는 모양. ②벌레 따위가 가볍게 기어다니는 모양. ③머리를 천천히 설레설레 흔드는 모양.
새뱃군(명)	선달그믐이나 정초에 웃어른께 인사하러 다니는 사람.
소쿠리(명)	대나 싸리로 엮어 데가 있게 만든 그릇.
술뚜껑(명)	술의 아가리를 덮는 것.
쇠술(명)	쇠로 만든 술.
수(의)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주로 ‘있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할 만한 힘이나 가능성.

수정과(명)	한국 전통 음료의 하나.
시리다(형)	몸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
시어머니(명)	남편의 어머니.
식료품상(명)	식료품을 전문으로 파는 장사. 또는 그 장수.
식다(동)	①더운 기가 없어지다. ②어떤 일에 대한 열의나 생각 따위가 줄거나 사라졌다. ③땀이 마르거나 더 흐르지 아니하게 되다.
식히다(동)	‘식다’의 사동사.
식혜(명)	쌀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설탕을 넣고 차게 식힌 음료.
아궁이(명)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안(명)	옷 안에 받치는 감.
엿기름가루(명)	엿기름(말린 보리의 싹)을 땃돌에 갈아서 만든 가루.
엿물(명)	엿기름물에 밥을 담아 삭혀서 짜낸 물.
엿(명)	곡식으로 밥을 지어 엿기름으로 삭힌 뒤 것물로 밥이 물처럼 되도록 끓이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짜낸 다음 진득진득해질때까지 고아 만든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
의생활(명)	입는 일이나 입는 옷에 관한 생활.
이야말로(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이어받다(동)	이미 이루어진 일의 결과나, 해 오던 일 또는 그 정신 따위를 전하여 받다.
인내(명)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
인조견(명)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
입히다(동)	‘입다’의 사동사.
잠자리(명)	①누워서 잠을 자는 곳. ②잠을 자는 이부자리.
장만하다(동)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추다.
장정(명)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절차(명)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집어들다(동)	①일정한 때나 기간에 이르다. ②사람이 일정한 나이나 시기에 이르다.

	③일정한 지점이나 길로 들어서다.
일다(동)	곡식이나 사금 따위를 그릇에 담아 물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다.
차곡차곡(부)	물건을 가지런히 겹쳐 쌓거나 포개는 모양.
차리다(동)	①음식 따위를 장만하여 갖추다. ②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가다듬어 되찾다. ③마땅히 해야 할 도리, 법식 따위를 갖추다. ④어떤 조짐을 보고 짐작하여 알다. ⑤살림, 가게 따위를 벌이다. ⑥욕심 따위를 채우려 하다.
찬물(명)	차가운 물.
참생활(명)	진실하고 올바른 생활.
척척(부)	①질서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는 모양. ②전혀 서슴지 않고 선뜻선뜻 행동하는 모양. ③일이 거침없이 아주 잘되어 가는 모양.
철컹철컹(부)	①끈기 있는 물건이 자꾸 세차게 들러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크고 단단한 물체가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치유하다(동)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다.
코오피(명)	커피
콩강정(명)	볶은 콩을 엮으로 버무려 뭉친 강정.
타다(동)	①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②콩, 팥 따위를 땃들에 갈아서 알알이 쪼개다. ③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④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여 달리다. ⑤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타오르다(동)	①불이 붙어 거세게 타기 시작하다. ②마음이 불같이 후끈 달아오르다.
통장작불(명)	통장작으로 피운 불.
통조림(명)	고기나 과일 따위의 식료품을 양철통에 넣고 가열 살균한 뒤

	밀봉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식품.
투명하다(형)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다.
푸짐히(부)	마음이 호뭇하도록 넉넉하게.
한겨울(명)	한창 추위가 심한 겨울.
한약방(명)	한약을 짓거나 한약재를 파는 곳. 또는 한약업사가 경영하는 가게. 한약국.
형깊(명)	피륙의 조각.
혀끝(명)	혀의 끝 부분.
호콩(명)	땅콩. 花生
홀로(부)	자기 혼자서만.
흰떡(명)	멥쌀가루를 고수래하여 시루에 찌서 안반에 놓고 떡메로 친 떡.

연 습

1.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를 고르라.

- 1) a. 이 떡은 ()어서 먹을 수가 없다.
b. 그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혀가 ()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c. 한번 말버릇이 ()어 버리면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d. 병사들은 피로 조국을 지키겠다고 ()게 맹세하였다.

- 2) a. 형은 벽에 못을 ()으면서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b. 나는 투명 유리로 된 출입문에 이마를 ()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c. 옷단을 재봉틀로 촘촘히 ()았다.
d.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나무가 뿌리를 ()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 3) a. 손님이 오시자 어머니는 정성껏 술상을 ()어 방으로 들여갔다.
 b. 이 약을 먹고 어서 기운을 ()고 일어나라.
 c. 그 어른 앞에서는 좀 더 신중히 예의를 ()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d. 너는 너무 실속만 ()어 친구가 없는 거야.
- 4) a. 바위를 ()는 솜씨로 보아 저 사람은 암벽 등반가인가 보다.
 b. 맷돌에 직접 콩을 ()서 만든 콩국수라서 그런지 맛이 일품이다.
 c. 연이 바람을 ()고 하늘로 올라간다.
 d. 스케이트를 처음 ()을 때는 엉덩방아를 찧게 마련이다.

2. 다음 문장의 () 속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

- 1) 그들은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도 손발이 () 들어맞았다.
 a. 뽄뽄이 b. 척척 c. 설설 d. 차곡차곡
- 2) 흐트러져 있는 책들을 () 모아 두었다.
 a. 뽄뽄이 b. 척척 c. 설설 d. 차곡차곡
- 3)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은 서로 답을 ()어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a. 간추리다 b. 가리다 c. 가늠하다 d. 맞추다
- 4) 교통사고로 연인을 잃은 그는 지난날의 악몽이 ()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a. 생기다 b. 떠오르다 c. 되살아나다 d. 되돌아보다

3. 보기와 같이 다음의 여러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놓으라.

보기: 설이 가까워 온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새 옷을 준비한다.

정초 음식 차리기를 서두르셨다.

설이 가까워 오면 어머니는 가족들의 새 옷을 준비하고 정초 음식 차리기를 서두르셨다.